



영국, 수혈로 인한 AIDS환자 소송제기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혈우병환자 약 7백 50명이 오염된 혈액제제를 허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영국에서, 이번엔 수술시 등에 수혈로 인해 AIDS에 감염된 사람들도 혈우병환자와 동등하게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준비중이란 것. 영국정부는 이같은 제소가 현행 국영 의료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고심하고 있다.

영국에선 약 1천 2백명의 혈우병환자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의 사용으로 인해 AIDS에 감염, 이제까지 1백 63명이 발병하여 1백 10명이 사망했다. 80년대 초에 사용한 혈액제제의 8할을 차지하는 미국제가 AIDS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이었다.

영국정부는 혈우병의 피해구제금으로 1987년에 1천만파운드를 출자하여 「백파렌기금」을 설립했다. 감염자들에게 최고 1주에 25파운드를 정기지급하는 이외에 의복, 침대, 세탁기 등의 구입이나 창문의 이중화 등에도 지출한다. 또한 작년 11월 말엔 일시금으로서 1인당 2만파운드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 구제는 발병 여부에 관계없이 감염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송에서, 피고는 의료행정을 맡고 있는 보건부, 각 지역의 보건당국 및 의약품안전위원회(CSM). 원고들은 오염된 혈액제제의 사용을 허가한 책임을 물어, 「더욱 일찍 바이러스의 감염우려가 없는 가열제제를 허가했어야 마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1월부터 준비수속이 시작되었다. 재판은 11월 경에 개시될 전망이다.

단 재판의 행방은 불투명하다. 원고도 정부도 법정 밖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면도 있다. 법정에서 비타협적으로 싸우면 정부의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수는 있으나, 반면에 원고들 가운데서도 너무 일찍 발병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판을 오래 끄는 사이 환자들이 잇달아 죽어 가리란 것」이라고 영국 혈우병협회 회장 워터스는 말하고 있다.

한편 최근엔 보통의 수혈에 의해 AIDS에 감염된 사람들도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술시에 감염된 26세의 남성이 최근 스코틀랜드수혈센터를 상대로 20만파운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들이 모여들었다. 수혈에 의해선 이제까지 21명이 발병하여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적어도 수혈에 의한 감염자가 50명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영국정부는 수혈에 의한 감염은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변호사들은 「국영의 의료서비스에서 감염되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입장은 혈우병환자나 그밖의 감염자나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현재 혈우병환자들이 받고 있는 것과 동등한 구제조치를 요구할 태세이다.

유럽에선 AIDS감염자가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영국의 경우가 예외적이다. 혈우병환자의 경우에서도 영국이외의 나라들에선 기존의 「손해배상법」 등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대기오염-발암 원인, 동물 실험 통해 입증

암관련 연구분야에서 가설로만 알려졌던 대기오염과 발암과의 인과관계가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미국남가주의대 아르니스 리히터스 교수(병리학)는 최근 열린 과학저술가세미나에서 생쥐에게 이산화질소가 함유된 공기를 호흡케 한 결과 정화시킨 공기를 흡입한 생쥐에 비해 폐암세포수가 훨씬 많았다고 발표했다.

리히터스교수는 이산화질소는 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로 대도시 스모그중에 가장 많은 성분인만큼 이번 연구결과를 대도시주민을 대상으로 한 암발생률 역학조사와 비교해 보면 대기오염과 발암과의 관계가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 표어 ●

“지구는 아름답게

사람은 건강하게”

● 한국건강관리협회 ●